



우리투자증권 김순삼 광주지점장의 이번주 추천종목은 대우인터내셔널과 인터파크다. 기지점장은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 미얀마 가스전을 중심으로 한 자원개발의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가스판매 관련 최종계약이 체결되는 등

미얀마 가스전이 실질적인 수익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파크는 이달부터 쇼공·도시 등 4개 회사로 분할되고 자회사인 G마켓까지 포괄하는 지주회사로 거듭나게 되는 점이 향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얀마 가스전 내년 본격 탐사

■ 대우인터내셔널

무역과 제조, 유통업을 주로 하는 종합상사지만 최근에는 가스전 설비 등 플랜트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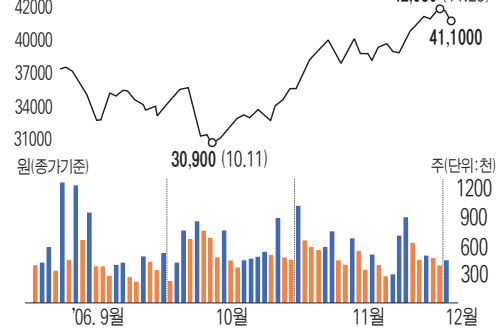
환율하락과 고유가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신규 및 유망 거래선의 적극적인 개발과 주요 제품가격 상승으로 견조한 매출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 기계 플랜트, 전자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증대 및 장기 공급처 확보로 영업이익률도 호전되고 있다.

올 3분기에도 매출액 1조6천125억원에 영업이익 20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30.1%와 17.5% 증가하는 등 3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개선되고 있다.

이같은 실적 호전을 선 반영하듯 주가는 지난해 1만원에서 4만원까지 급등했으며 올해는 1월 초 4만9천300원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3만원에서 4만원대의 박스권에 갇혀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한 이유로 ▲가스사업이 탐사단계에서 실질적인 개발단계로 진입할 전망이

■ 대우인터내셔널



며 ▲중기적으로 가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시장이 판매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미얀마 가스전의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되면서 가스 매장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꼽고 있다. 여기에 2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교보증권이 상장될 경우 얻게 될 지분 차이도 향후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미얀마 가스전이 개발되더라도 대우의 지분은 가스판매 가격의 10% 수준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G마켓 포괄 지주회사 거듭나

■ 인터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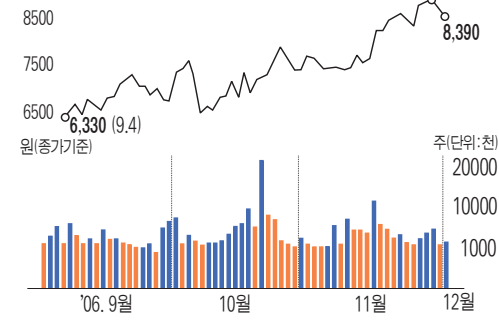
국내 최대의 인터넷 종합쇼핑몰 운영업체. 유희 기반 '바다이야기'로 벗어난 경품용 상품권 파동으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마진율은 상품권 부문 매출이 타격을 입으면서 3분기 실적이 어닝쇼크 수준으로 악화됐다.

그러나 지난 6월말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자회사 G마켓의 주가급등과 최근 인터파크를 소량과 도시, 엔터테인먼트, 여행사 등 4개사로 분할하기로 하면서 주가는 8월말을 연중 최저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G마켓은 옥션과 함께 국내 온라인 장터를 양분하고 있는 쇼공몰로 시가총액만 1조원을 넘어 서고 있는 인터파크의 주력 성장동력이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인터파크 주가에서 G마켓이 차지하는 주당 가치를 6천원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4개사로 물적분할 함으로써 향후 이들 4개사와 G마켓까지 포함한 지주회사로 거듭나는 점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라는 지적이 많다. 인

■ 인터파크



터파크가 지주회사로 거듭나면 각 자회사의 주당 가치 기여분의 합산이 지주회사의 적정주가가 되는만큼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아 JP모건 증권은 G마켓의 가치가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고 치열한 경쟁 및 신규사업의 잠재적 손실 등을 고려할때 수익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1년 미만 예금 580조

단기 부동산금 증가세 지속

단기 부동산금의 증가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상반기중 금융부문의 금융거래 특징'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과 증권기관을 포함한 전체 금융기관의 단기예금은 580조4천억원으로 작년말 544조원에 비해 36조4천억원이 늘었다.

은행권만 보더라도 431조4천억원으로 지난해말 410조8천억원에 비해 20조6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금에서 단기예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은행권 단기예금 비중은 2004년말 54.7%에서 작년말 60.0%로 높아졌고 올해 6월말에는 다시 60.8%로 상승했다.

전체 금융기관의 단기예금 비중은 2004년말 46.5%에서 작년말 50.8%, 올해 6월말 51.5% 등으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연합뉴스

“연구개발 투자·채용 확대”

국내기업들 내년 전망

내년에는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인력채용 규모가 올해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회장 허영섭)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국내 R&D투자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07년도 R&D 투자 및 인력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합뉴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절반이 넘는 51개사는 내년 R&D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할 계획이며 37개사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투자규모를 올해보다 축소하겠다는 기업은 12사에 불과했다.

투자규모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51개사 중 9개사는 올해보다 20%이상 크게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8개사는 10~20%, 24개사는 10%이내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했다.

R&D인력 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45개사가 올해보다 확대할 방침이었고 올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업은 4개사로 조사됐다. 채용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힌 기업은 15개사에 그쳤다. 인력채용 규모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45개사 중 21개사는 10%이상, 24개사는 10%이내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내년 수출 3,590억달러

올해보다 10% 증가... 무역흑자 150억 달러

무역협회 전망

한국의 내년 수출은 3천590억달러로 올해보다 10% 늘어나고 무역흑자는 1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3일 발표한 '2007년 무역환경 및 수출입전망' 자료에서 내년 수출은 금년대비 10.1% 증가한 3천590억달러, 수입은 11.0% 증가한 3천440억달러로 무역흑자는 1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년 수출은 큰 폭의 환율하락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예상외의 세계경기 호황과 주력품목의 선전 등에 힘입어 연간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한 3천26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금년 수입은 전년비 18.7% 증가한 3천100억달러에 달해 무역수지는 16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세계경기의 둔화가 예상되지만 환율과 유가가 올해보다 안정되는 가운데 주력상품의 호조세가 내년도에도 지속돼 두 자릿수의 수출 증가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자동차·선박 등이 내년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이어가는 반면, 올해 고유가로 인한 수출단가 상승효과를 크게 봤던 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은 유가의 하향 안정세로 인해 내년 수출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글로벌 기업의 저가폰 공세에 밀려 수출이 급감했던 휴대폰은 내년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나 컴퓨터·섬유직물·섬유제품 등은 내년도에 마이너스 증가율이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수입은 유가가 올해에 비해 안정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원자재 수입증가율이 큰 폭으로 꺾일 것으로 예측했다.

무역연구소 관계자는 "내년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10%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이후 5년 연속 두 자릿수의 수출증가율을 1980년 이후 최장의 수출호황기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삼성전자, 울트라 휴대폰 3종

라메시징(i600), 울트라비디오(F500), 울트라뮤직(F300). 8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 세계 40여 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음악과 비디오와 메시징 기능을 강화한 삼성전자의 새 휴대폰 3종이 3일 '홍콩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텔레콤 월드 2006'에서 선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울트라메시징(i600), 울트라비디오(F500), 울트라뮤직(F300). 8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 세계 40여 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공공요금·세금·금리 '4중고' 먹구름

관계부처·지자체·민간경제연구소 내년 경제 전망

경기·공공요금·세금·금리 등 4중고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3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경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2개월 연속 상승하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3개월 연속 올라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작은 순환주기의 예기일 뿐 큰 흐름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 제시되고 있다.

내년 세금부담이 정략하게 얼마나 증가할 지는 내년 예산안과 올해 세수가 확정돼야 알 수 있지만 내년 세입 예산안과 내년 추계 인구 등을 감안한 국민 1

인트나 낮은 4.4%로 하향 조정됐다.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4.1%나 오른 공공요금은 내년도도 심상치 않을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는 2005년 2.38%, 올해 3.9% 인상된 데 이어 내년에는 6.5% 올라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3천200원, 직장가입자는 3천700원을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세금부담이 정략하게 얼마나 증가할 지는 내년 예산안과 올해 세수가 확정돼야 알 수 있지만 내년 세입 예산안과 내년 추계 인구 등을 감안한 국민 1

인당 세부담은 383만원으로 올해보다 20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세는 13조7천764억원으로 올해 예상치보다 13.0%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5조3천252억원으로 올해 예상치보다 11.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과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등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갔고 그 여파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가 장기 비전의 생명은 사회적 합의”

세계은행 부총재 자문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합의, 대타협만이 국가 장기 비전의 생명력과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파블로 구에레로 세계은행 부총재 자문관은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하는 '21세기 국가 장기 비전 비전과 전략' 국제회의 참석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아일랜드, 핀란드, 일본 등에서 참석한 해외 전문가들도 자국의 장기 비전 수립 사례를 소개하며 사회적 합의를 위

한 끊임없는 토론과 국가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예산처가 후원하는 이번 회의는 오는 4~5일 이틀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KDI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에레로 자문관은 “국가 비전은 정부 및 민간부문을 포괄하며 다양한 이해 집단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때 더 효과적이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사회적 타협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협상력이 약한 이해당사자들을 배려해 대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신뢰 구축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209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02 07 18 20 24 33	37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660,896,350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8,849,893
3	5개 숫자 일치	1,223,046
4	4개 숫자 일치	50,351
5	3개 숫자 일치	5,000

팝콘복권 (제32회)

등 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3조 631576
2	5억	3조 631575
3	3억	631577
4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5	1백만	각조 49420
6	1만	각조 257
7	2천	각조 29
8	1천	각조 42
9	1천	각조 8
10	1천	각조 3

함께 일합시다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남원	해외영업원 모집-영어 또는 중국어 능통자	초대졸/경력무관	3200~3400	12/05	062-225-9181
☞창영물류	경리.전산업무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2/05	062-603-4000
☞케이아	생산기술 경력자 모집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2/07	062-658-0681
☞쿠쿠인력	경영사무원 여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7	062-511-3520
☞한진기공	기계설계직 경력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3000~3200	12/07	062-953-1642
☞신영중공업	원가사입관리 및 항공사입부서 기능인력 채용(목포)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2/08	061-800-3700
☞태영건설	건축/토목/공무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2/08	062-606-6553
☞남해철강	[건설 품질관리/생산관리 및 공무]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9	062-943-8676
☞르네상스정보기술	전산정보운영(SM운영)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0	02-521-7577
☞유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0	062-228-0222
☞영진중합건설	중합건설회사 총무부 직원채용	초대졸/경력1년	1400~1600	12/10	062-226-2220
☞HRN	SK텔레콤 114/미남상담직 동시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2/11	062-529-2671
☞보리정밀	생산직 검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2/13	062-953-3016
☞엔지테크	병원프로그램 개발자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3	062-676-875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경제계 인사

◇현대상호중공업
▲전무 박봉안 ▲상무 박정부 ▲이사 김병희 ▲이사대우 이득욱 정하택